사 설

조계종 종회의 대 도약

조계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종회의원연수회가 열렸다. 이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한국불교와 종단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종단개혁을 통해 거듭나기 위한 격심한 진통을 겪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개혁회의는 종단운영을 민주화하고 불교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자주화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총무원의 행정과 사무체계가 독점·집중되어 많은 병폐가 발생했다는 인식속에서 중앙종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중이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종단구조로 제도화하였다.

여기서 중앙종회의 역할과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단순한 종단의 입법기관의 지위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대중의 대표기관으로서 불교발전을 이끌어야 할 소명을 가지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종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화·효율화를 목표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연수회는 바로 이러한 중앙종회의 역할과 사명을 새삼 다짐하고 한국불교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창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수회의 성과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참회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다짐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의 중앙종회활동을 정리 평가하고 올해의 과제를 다각적으로 설정해 보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었다. 특히 전문가로부터 국가입법부인 국회의 운영실태를 들어보고 종회운영의 합리화·체계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물론 이해타산적인 국가권력과 세간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조직은 부처님의 법인 출세간법에 의해 지배되는 종단조직과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현실적인 틀속에서 조직원리가 유사성 동질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각정당의 정책위의장들을 초청하여 종교관련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이나 종교의 순수성을 내세워 이러한 정책토론회가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릴 위험성과 지나친 현실참여를 걱정하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도 결국 우리가 살고있는 역사 사회속에서 구현된다는 점을 인식할 때 현실적인 정치 경제 사회에 무관할 수만은 없다. 특히 정치가 우리의 부엌살림까지 파고들어 오고 있지 않는가. 그동안 현정권의 각종 파행적인 종교편향정책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온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땅히 비과세되어야 할 사찰땅에 엄청난 종토세 토초세가 부과되었다가 철회된 적도 있다. 대통령의 국방부예배사건을 비롯하여 특정종교를 위한 교과서제작 배포 및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설립추진에 이르기까지 각종 종교불평등 정책을 보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국가정책이 종단활동과 불교발전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가를 체험하고 있다.

셋째, 사원경제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있었던 것은 '생산불교'와 '깨달음의 사회화'를 내세우고 있는 개혁종단의 실천과제를 점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은 산업사회이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다. 종단의 물적토대인 재정의 합리화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현대적인 경영기법과 경영진단을 통해 재무구조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수회의 위와같은 큰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업서버 조차로도 재가불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사부대중이 함께 더불어 참여하는 부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열 린 마 당

여야 불교관련 정책

조계종 종단사상 최초로 중앙종회의원 연수회가 7~9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4당 정책위의장이 불교관련 정책의 방향과 관계 법령에 대해 밝혀 주목을 끌었다. 여야 각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정교분리 준수 '종교상호 이해기반' 조성

나 오 연 〈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

종교재산의 보호를 통한 종교활동에 대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종교간 차별금지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종교자유의 실질적인 보장을 한다.

그리고 종교간 화합과 자정노력을 지원해 건전한 신앙생활 풍토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책자발간 학술행사 개최 등 종교간 상호이해 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종교를 빙자한 유사종교의 반사회적 활동을 규제한다.

특히 종교가 건강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종교계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종교계의 청소년대상 인성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도덕성 회복운동, 환경보호운동 등 국민의식운동도 확산및 유도한다.

불교관련 법령: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채택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불교계가 의견을 집약해 개정안을 제출하면 협의 검토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관련 불교계의 주요 관심사항인 ▲국립공원지정 및 국립공원계획시 구역내 사찰 소속종단 대표자와 사전협의 ▲자연공원내의 종교시설에 종교활동을 위해 출입하는 불자에 대해 입장료를 면제 ▲국립공원위원회에 불교계 위원수 증원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 내용의 법령에 명문화 ▲공원입장료 수입의 30%를 사찰에 지급토록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 등을 검토한다.

성보 박물관지원·군종정책 형평 유지

손 세 일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

종교단체는 각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에 입각해 인권보호와 사회봉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는 종교마다 공통된 현상이며 이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종교시설이 유아교육과 성인교육 등 교육시설로도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재정지원이 따라야한다.

한편 전통문화 유산을 지켜온 불교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은 불교계의 일일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중대사이다. 따라서 성보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지원 1/3 지방자치단체 1/3 당해사찰 1/3씩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불교종합병원 설립 문제는 불교계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인사, 군종 정책: 정부부처 인사에서 나타난 지역 계층 종교 편중현상을 근본적으로 지양해야한다. 군종정책이 형평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며 군종장교의 균형있는 수급을 위해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

불교관련 법령: 종교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종교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모든 종교단체를 포괄할 수 있는 '종교재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차별없이 보호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종교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각 종교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각 종교 특수성 중시 '종교법인법' 제정

서 경 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

건전한 종교문화의 발전을 위해 종교단체의 공익성, 공공성 등의 특수성을 감안한 종교법인법의 제정이 신중히 검토되어야할 단계에 와있다. 이에 부합되는 사회경제적인 권리주체로서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종교법인법은 또한 모든 종교가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면서도 각 종교가 갖는 특수성이 무시되어서도 안되는 만큼 매우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종교단체의 이해관계인, 종교법관계 전문학자, 종교학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구를 먼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교관련 법령: 전통사찰보존법전통사찰지정 및 각종 처분은 불교계 인사가 참여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한다. 한편 공원관계법령은 사찰이 고유한 종교활동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지역내에 종교시설지구를 지정해 해당종교단체의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관장토록한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자연환경보전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상에 특별지구를 설정하는등 입법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한편 도시계획법은 문화시설에 대해 보존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종교시설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사찰 및 그 부대시설의 보호와 보존이 필요한 때는 보존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시설을 제한해야한다.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법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지 않는 데 있다.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전통사찰의 토지를 유휴지로 지정해서는 안된다.

공원수익금 배분등 사찰자율권 보장

박 구 일 〈자민련 정책위 의장〉

불교에 관한 정책은 타 종교에 비해 편향적이라는 입장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다종교 현실에서 종교간의 균형성유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사찰보존법의 정비, 지방세법의 수정보완 사찰의 자율권 확보 및 불교문화재의 온전한 보존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등이 기본적 선결조건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민족문화의 보전과 국민의 건전한 의식을 담고 갈 문화재 보존에 두어야한다. 민족문화재의 훼손과 유실을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따라야한다.

불교관련 법령: 전통사찰보존법은 정부의 불교재산 몰이해가 잘 드러나 있다. 개선책으로는 경내지의 범위를 과세권자인 시, 군,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전통사찰보존법에 명시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여 적용하도록 해야한다. 한편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남아있는 수익용 토지에 대한 세금부담이 완화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사찰소유의 임대농지에 대한 과세 역시 점진적 완화를 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관리법에서 주의해야 할 관점은 공원내의 사찰 자율권 확보 문제이다. 사찰 자율권 확보는 법률개정을 통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찰 스스로 자율권 확보를 위한 의지와 인식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한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인사구성을 비롯해 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문제 및 수익금 배분 등 불교계가 요구하는 사안을 충분히 감안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현대만평

박구원

우리와 가까운…

목어

국적불명 신세대 명절

2월14일 발렌타인데이, 3월14일 화이트데이, 4월14일 블랙데이. 청소년 또는 신세대들이 새 명절로 챙기는 날들이다. 발렌타인데이는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고 화이트데이는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사탕을 주는 날이라나. 그럼 블랙데이는? 이날은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아무것도 못받은 '광맨' '광우먼'들이 검은 옷으로 차려입고 시커던 자장면을 먹거나 블랙커피단 마시는 날이라고 한다.

이 무슨 국적불명의 해괴한 날들이냐고 묻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년 2월과 3월이면 초콜릿·사탕장수들은 대목을 노려 온갖 상술을 다 동원한다. L백화점의 경우 하루평균 초콜릿 판매액은 20~30만원선. 발렌타인데이에는 한 매장에서만 8~9백만원 정도로 매상이 껑충 뛴다는 보도가 있었다.

발렌타인데이는 가톨릭의 순교사제 발렌티노를 기리는 축일과 연관있다는 설이 있다. 연인들의 수호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발렌티노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으나 사랑고백, 초콜릿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고 받게 된 것은 10여년전 일본의 한 초콜릿회사의 착상에서 시작됐다니 무분별한 외래문화 수용이 그저 한심하기만 하다.

"미국서는 발렌타인데이에 조용히 지내요. 평소 좋아하는 사람에게 카드나 사탕·초콜릿 등을 보내지만 그 대상은 꼭 연인만이 아니라 부모·직장동료·친구일 수도 있어요.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하죠" 한 미국인은 한국에 와서 '화이트데이'나 '블랙데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말한다.

신세대는 명절도 외제를 선호하는가. 각성할 일이다. 우리의 단오·유두·칠석 등 민속절을 청소년 축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또 견우 엿·직녀 사탕·오작교 떡·춘향과 이도령 한과는 어떤가.

불교청소년의 해를 선포한 조계종이 각계 청소년 관계인들과 연계해서 우리의 새싹과 젊은이들에게 '우리 얼'을 심어주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말씀

이긴 사람과 진 사람

이긴 사람은 더욱 미움을 사고
진 사람은 잠자리가 불편하다.
이기고 지는 것을 함께 버리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으리.

〈잡아함경〉

협찬 목동청소년회관 관장 명 우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첨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네트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